

# 개발 못해 더 소박하고 마음 편한 도시가 되었구나



부다페스트 고건축물을 배경으로



〈3〉 부다페스트-이이남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은 도나우강이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햇빛이 강렬한 한낮,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는 해질 무렵, 그리고 야경의 불빛이 어른 거리는 한밤중.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도나우강을 찾았고 매번 달라지는 '풍경'에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난 5월의 헝가리 방문은 오는 2017년 열리는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행사 준비 차원이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는 광주시는 폐막식에서 대회기 인수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8분여간의 행사는 미디어 아트와 공연이 어우러진 이벤트로 인권, 평화, 문화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작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이번 방문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야외 수영장이었다. 도나우강에 다이빙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그 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대리석의 국회의사당은 웅장했다. 실내 수영장 대신, 아름다운 부다페스트 도심까지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은 '도시 홍보'에 더 없이 훌륭한 공간이었다. 전 세계 매스컴이 대회를 중계하며 자연스럽게 도시 풍경을 촬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는 파리 등 다른 유럽 도시와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소박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었다. 고층 건물이 거의 없고, 오래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도시였다. 수영대회 조직위 관계자에게 왜 고층 건물이 없는지 물었더니 2차 대전을 치르고 난 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런 점이 '도시 경쟁력'이 돼 관광객이 몰려들어 좋다고 했다. 유명하다는 야경도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다. 고건축물과 아름다운 강변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다페스트를 둘러보는 동안 내가 살고 있는 광주 생각

이 많이 났다. 광주를 비롯한 한국의 도시는 오래된 것을 부서버리고, 새로운 것을 짓는 데만 몰두한다. 눈에 보이는 건 아파트 뿐이다. 광주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골목길, 광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 등.

오는 2019년이면 광주에서도 세계 3대 빅 스포츠 중 하나인 수영대회가 열린다. 행사가 치러지는 동안 광주도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미디어의 힘은 도시 관광과 국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 카잔이 그랬듯이 부다페스트는 아름다운 고건축과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수영대회를 치른다.

광주가 보여줄 '광주다운 풍경'은 어떤 것일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일 수도, 5·18 묘역 일수도, 역사가 서린 금남로 일 수도, 양림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일 수도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아름다운 전경이 수영대회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이남

-조선대학교 조소학과 학사, 동 대학원 순수미술 석사,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선미술상, 올해의 미술인상 청년 작가상, 올해의 미술가 대상 특별상 등 수상  
-광주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준비 자문위원, 2013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부다페스트 로타리 광장의 소박한 건축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